

전매광장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한반도미래연구원장

평화 공존만큼 완벽한 국방은 없다

수백만 명을 죽일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 국민 중 일부도 미국 핵무기를 남한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하건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8,000만 인구 중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남한이나 북한 강경파들은 결박하면 전쟁 운운한다. 요즘은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까지 선제공격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선제공격은 곧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이다. 긴장을 고조시킨 일차적 주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도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과거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사건이나 미얀마 아웅산 사태 때 남한이 보복 방식을 몰라서 보복하지 않았겠는가. '이에는 이'로 대항할 경우 자칫하면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인내한 것이다. 지금은 1960-80년대와 또 다르다. 전쟁이 발생하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게다가 지금은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지 않은가.

전쟁이 발생하면 인구, 경제력, 외교전 등에서 남한이 더 유리한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유리하다고 해서 남한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중국 모두 어느 한쪽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완전히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이 발발해도 6·25전쟁 때처럼 적당한 시점에서 휴전하고 말 것이다. 이게 냉정한 국제정치의 원리이다. 남은 것은 수백만 명의 인명 살

상과 폐허가 된 국토뿐일 것이다.

서울시청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불과 38km 내외이다. 휴전선 가까이 수도권에 남한 인구 50%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전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일부 남한 정치인들이 강경 주장을 펼치고 전쟁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서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본다. 순전히 국내 정치용 언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일반 국민들도 좀 더 냉정해야 한다. 보수는 진보도 경찰기의 성격을 띤 무기기 사대에 대해 그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혹은 그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지나친 수준의 책임 추궁과 비난은 자제하는 게 좋다. 대결을 통한 완벽한 국방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 추궁이나 비난 혹은 공포 조장은 결과적으로 강경론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국내 정치용 용어 경계를

국방의 최대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나 무기 성격으로 봤을 때 방어 전쟁이든 공격 전쟁이든 전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한 모두 대결이 아니라 평화 공존 속에서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평화 공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의 국방이다. 모든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평화 공존의 길을 개척하기를 희망한다. 아니 강력하게 요구한다.

말

가르치는 일이고, 답사 안내며 각종 행사의 진행자 역할까지 간간히 해왔으니 보통 사람들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셈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은연중에 은사님의 말하는 방법을 본으로 삼고 본받으려 애를 써왔다.

한데 요즈음 약간의 혼돈이 일고 있다. 지금껏 내 전달식 말에만 몰두해 있어서 교감하며 주고받는 상대적 언어에는 서툴다는 생각이 더 커서이다. 지난번 문단의 한 선배와 한해를 마감하는 자리를 했는데 그 선배를 만나고 난 후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선배는 큰 목소리를 가진 것도, 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들릴 듯 말 듯 자분자분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하면 주변이 모두 박장대소가 된다. 아무리 처져있는 분위기라도 금방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버리는 마술 같은 힘을 가졌다. 잘하는 말을 고르라면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들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인생의 반은 성공한 삶이라 생각한다. 동급생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곁에는 항상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고민이나 말 못 할 사정이 생겨도 으레 상담의 대상으로 그 친구를 택하곤 했다. 가슴 가득 무수한 언어들만 안고 살면서도 표현을 못 했던 나로서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 친구는 항상 험담보다는 칭찬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투나 말의 템포, 표정, 자세 등이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진실하고 따뜻했다.

아무리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도 입에서 토해지는 말들이 곱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외모와 상관없이 정갈한 언어와 따뜻한 미소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고 보일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라면서 아니 평생을 두고 배우면서 갈고 닦아야 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 순화된 말을 쓰는데 듣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잘하는 말을 들자면 듣는 이의 가슴에 정감이 넘쳐나게 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이 피어나게 하는 말일 것이다.

계묘년, 전화 금융사기 근절하자

넬 테니 돈을 맡기면 보관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다. 그리고 가족, 지인 납치 빚자 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등을 납치했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100% 사기이니 꼭 속지하여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

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전화사기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시민 서로서에게 홍보하고 특히 지식들은 부모들에게 수시로 주지시켜 계묘년 새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피해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진병진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에세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며 정확한 발음으로 마음의 진실을 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도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한다.' 가끔 독백처럼 읊조려보는 대화의 상식이다.

확장 시절, 존경하고 따랐던 작문 선생님은 잠시 성우를 하셨던 분이였다. 사뭇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런 목소리는 물론 발음, 단어와 단어 사이의 소리 간격, 음의 고저, 말하는 자세,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도 어찌나 보기 좋고 듣기 좋은지 작문 시간만 되면 뺨을 잃곤 했다. 선생님은 말을 할 때나 책을 읽으실 때나 마음의 온 감정을 모아 정성을 다하시곤 했다.

그런 영향이였는지 나 역시 낭송이나 동화 공연 등 읽고 말하기를 즐긴다. 거기도 직업 역시

특지광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사기 예방에 대해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평상시 나는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통장계좌 등 관련 피해발생에 대한 전화하는 경우는 없으니 다음과 같은 수법의 전화사기 내용을 숙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경찰·검찰·금융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범죄 연루·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조정비·수수료·공탁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현금을 인출해서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예금보호 등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한 뒤, 집 우체함등에 보관하라고 하고 이를 훔치거나 금감원 직원, 수사관을 보

시설

전남 속원 '흑산공항' 연내 첫 삽 뜨나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속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흑산공항 건설이다. 흑산공항은 2009년 정부가 소형공항 건설을 검토하면서 울릉공항과 함께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부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해를 넘겼다. 국립공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기 이르면 이달 말 회의 열어 심의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인다. 심의를 통과할 경우 건립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는 1,833억원으로 54만7,646㎡ 면적에 길이 1.2km, 폭 30m의 활주로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남도가 지난해 흑산공항 건립을 위해 편성했던 130억여 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됐지만 전남도와 신안군은 국립공원을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해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흑산공항은 현지 주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다. 울릉공항은 건설되고 흑산공항은 지연되는 상황을 올해에는 타개해야 한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착공해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울릉공항은 비용편익분석(B/C)값이 1.19로 4.38을 받은 흑산공항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고 건설 사업비는 6,633억원으로 흑산공항에 비해 3배에 달했다.

올해 흑산공항을 반드시 착공해 응급의료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의 궤를 깔아야 한다. 신안군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수도권과 1시간 내 접근성으로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보러 오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북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항공기가 운항하면 남도의 관광문화시설은 크게 빛을 발할 것이다. 정부는 전남도와 신안군, 지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U대회 잔여재산 광주체육 위해 쓰여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해산 절차를 밟는다. 대회가 폐막된 지 8년이다. 조직위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421억원이 국비와 시비 기여비율에 따라 나뉘어 예정인데 광주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U대회 조직위는 다음 달 말 서면 총회를 통해 해산된다. 총회에서는 해산, 잔여재산 처분, 법인 청산인 지정 등 3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300여명 조직위원들은 해산하고,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 개최로 생긴 잔여재산 421억원은 국비와 시비 기여 비율에 따라 나뉜다. 배분율은 조직위 해산 후 이뤄질 법인 청산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대회 운영비 조달 기여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U대회 레거시 사업 무산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U대회 기념재단 설립 등이 검토됐다. 하지만 선수촌 사용료 소송 등으로 거의 8년 만에 조직위가 해

산하는 상황에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없던 일이 됐다.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U대회 정식 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U대회에서 가장 기대됐던 것은 레거시 사업이었다. 당시 '고비용 저효율'을 내세우면서 광주시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댔다. 시설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절약을 초점을 맞췄고 특히 70개 경기장 가운데 47개만 새로 짓고 대부분 개보수에 사용했다. 그러면서 대회 이후를 위해 레거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효과적 스포츠 이벤트 레거시와 제반 여건 등을 연계한 레거시, 지속가능한 레거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가동기로 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정됐던 기념재단을 설립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변화가 생겼다. 광주체육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잔여재산 배분액이 확정되면 이는 광주체육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체육시설 건립이나 국내의 대회 유치 등 U대회의 유산으로서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영산강수계 유해물질 조사 연구의 필요성

기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수계에 존재하는 미량의 유해물질은 수생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수계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준 마련 등 수계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하천 수질 관리는 주로 BOD, COD 등의 오염 지표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

농약은 농산물이거나 인산물의 병충해를 방제하는 데 사용된 농약은 강우에 의해 직접 하천수로 유입된다. 의약품은 인간뿐 아니라 가축·

수산물 양식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인간과 동물에 사용된 의약품은 낮은 체내 흡수율로 인해 섭취 후 25~75%는 분뇨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된다.

또한, 가정에서 생활하수로 버려지는 불용 의약품들에 의해 수계의 의약품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중금속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의 물질을 배출한다. 배출되는 폐수는 환경관리 제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처리돼 하천으로 방류된다.

전남은 영산강 유역으로 생활·토지·축산·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존재한다. 대규모 생활계인 광주시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처리장을 통해 영산강수계로 유입되고 있다.

평동·점단·하남산단 등 광주권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농공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 및 축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농약류, 항생제 등의 의약품도 역시 강우 또는 분뇨 유실 등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 영산강수계 유해물질 분포 조사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통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수계 유해물질 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수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